

개의 기관허탈 치료를 위한 기관내 스텐트 적용

이보라, 장하영, 김경희, 이준섭, 김구용, 김준영, 한현정, 윤현영,
박희명, 엄기동, 김휘율, 정병현, 정순욱*

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

서 론: 기관허탈의 수술적치료법으로는 기관점막추벽술, 선택적인 기관륜 횡절제, 기관 외부 보철물 장착등의 전통적인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방법들은 수술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장시간의 수술시간을 필요하며, 보철물 제작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을 가진다. 따라서 수술시간이 짧고 시술이 간단한 최소침습적인 수술방법의 일환으로 기관내 자가확장성 스텐트의 적용효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재료 및 방법: 기관 허탈을 가진 환축 4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은 특징적인 거위 울음소리 기침을 나타냈으며 단순방사선소견, 투시소견을 통하여 2-4등급의 기관허탈이 진단되었다. 또한 혈액 및 혈청검사 등의 수술전 검사가 시행되었다. 시술 전 7일간, 시술 후 14일간 프레드니솔론, 아미노필린, 에날에프릴, 프록세마이드,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으며, 필요에 따라 체중감량이 권유되었다. 프로포폴로 전신마취 후 투시 상태에서 나이트놀제제의 기관스텐트 (엠엔에스, 대한민국)를 경부기관 중간부터 흉부기관 중간까지 기관 내에 위치시켰다. 기관스텐트의 직경은 환축의 후두 바로 뒷지점의 기관 직경의 10% 증가값으로, 기관스텐트의 길이는 경부기관 중간지점부터 흉부기관 중간지점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선택하였다. 시술 후 하루 동안 산소케이지 안에서 입원관찰 후 퇴원시켰다.

결 과: 시술 후 다음날 4두 모두에서 기침 증상이 소실되었으며 시술전보다 호흡상태가 향상되었다. 시술 후 1개월에서 7개월까지 관찰한 결과 호흡은 향상되었고 기관 내경은 확장되어 유지되고 있었으며 삽입된 스텐트의 이동 및 골절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다.

임상적 의의: 기관내 스텐트 삽입술은 임상증상을 현저하게 소실시키는 시술이 용이한 최소침습적인 기관허탈의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생각된다.

*Corresponding author: swjeong@konkuk.ac.kr